

2019 움직이는 학교 자료집

력매전반

강규림 강아란 김단오 김동연 김지후 박석현 백늘푸른 서지호
이기범 이홍수 이지섭 이채영 임소은 최규민
송민혜 여병권 이정삼

간디에서 둥지틀기



저술



목차

력매전반 움직이는 학교(시작하는 말)	1 쪽
긴급 연락처	3 쪽
모듬	4 쪽
움직이는 학교 일정표	5 쪽
력매전반 하루 일과	7 쪽
역할 나누기	8 쪽
식단표	9 쪽
캠핑	11 쪽
천렵	13 쪽
우리 주변의 산	15 쪽
마을 일손 돕기	17 쪽
단양팔경	21 쪽
천동동굴	23 쪽
시장에 가면	27 쪽
청풍 문화재 단지	29 쪽
모듬별 제천 탐방	31 쪽
풍물과 사물놀이	35 쪽
부록 (글짓기)	45 쪽
부록 (력매전반이 좋아하는 노래)	58 쪽



력매전반 움직이는 학교

제천간디학교 1학년의 움직이는 학교는 '간디에서 등지틀기'란 주제 아래 앞으로 정붙이며 살아갈 제천간디학교 및 그 주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천간디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로지 력매전반만이 남아 있을 움직이는 학교 일정 중엔 내 삶의 터와 생활방식을 고민해 보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해 봅니다. 월악에서의 캠핑을 통해 텐트치는 것, 불 피우기, 밥 해먹기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립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월악산의 만수봉과 단양의 소백산을 오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청풍과 제천의 여기저기를 누비며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주변 환경을 둘러봅니다.

풍물을 통한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우리 안과 밖에서 많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연과 이웃 그리고 마을과 학교 등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함께 하는 간디학교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언제 : 2019년 6월 6일 (목) ~ 24일 (월) / 18박 19일
2. 어디서 : 제천간디학교와 제천, 단양, 청풍, 월악, 수안보 등 주변 지역
3. 누가 : 교사 3명 (민혜, 정상, 병권), 학생 15명
4. 누구와(강사) : 촌희쌤 & 상현쌤(산야초효소, 야생초차, 천렵&물놀이), 범락쌤(풍물전수)
5. 무엇을&어떻게 :
 - 6월 6일 ~ 16일 : OT, 지역탐방, 천렵, 캠핑, 등산, 일손돕기 등
 - 6월 17일 ~ 22일 : 최범락 쌤과 함께 하는 풍물전수
 - 6월 23일 ~ 24일 : 력매전반 모꼬지
6. 움직이는 학교 준비물
 - 생활
세면도구(친환제품으로 준비해 주세요.), 폼클렌징(선택의 제품입니다).

필요한 친구는 역시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해주세요), 공책, 필기구, 개인컵, 수건, 샌들(혹은 슬리퍼), 운동화(여분으로 한 켤레 더 준비해주세요.), 우산, 우비(우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자, 개인 옷(속옷, 양말 포함), 작업복(일손뎀기 때 필요해요. 반드시 긴팔&긴바지), 물통, 책, 바람막이

- 월악캠핑 2박 3일, 단양캠핑 1박 2일, 제천 모듬여행, 강릉 모꼬지 공통

침낭(캠핑 때 사용합니다. 하계용은 추울 수 있으니 춘추용이 좋습니다.), 물놀이용 샌들(혹은 슬리퍼), 작은 배낭(2박3일 쓸 옷가지와 침낭을 넣을 수 있는 크기), 실내 수영장용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개인 수저

7.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 용돈은 한 달 용돈과 학교에 오갈 때의 차비만 가져옵니다.
- MP3, 플레이어&아이팟 같은 스마트기기, 디카 등은 다함께 정한 시간에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 모든 생활규칙은 평소 학교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음주 및 흡연은 금지입니다.
-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행동 및 장난은 하지 맙시다.
- 약속한 시간을 잘 지킵시다.
-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회의를 하여 정합니다.



긴급 연락처

단양 시장 구경이나 제천 모듬별 여행할 때
이동 중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정신 줄 놓고 있다가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나 혼자 따로 있을 때~
일행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었거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집으로 전화하지 말고 바로바로 아래의 전화로 연락합시다!
집으로 전화할 경우 급한 상황일 때! 대처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민혜쌤 010-9125-9578

정상쌤 010-4614-2030

병권쌤 010-7767-0705

하늘마루 생활관 043-651-0814

학교 전화번호 043-653-5791~3



모듬

캠핑 텐트치기, 불피기, 식사/간식준비, 제천여행, 일손돕기, 하루달기등
18박 19일 간 함께할 친구들!!

모듬이름	구성원				
두다다콩	채영	민지	지섭	석현	늘푸른
단굴	아란	소은	룡수	동연	규민
최규민과 아이들	규림	지호	지후	기범	단오



움직이는 학교 일정표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2	3	4	5	6	7	8
오후	가	정	학	습	4:00 입교 움직이는 학교 OT	시루미 캠핑 출발 텐트 치기 모닥불 피우기 별보기	천렵체험 산야초 천렵체험 올갱이, 가재 석촌회, 박상 현쌤
오전	9	10	11	12	13	14	15
오후	만수봉 등반	마을일손 돕기	학교발 김매기	단양여행	소백산 등반	청풍 문화재	제천 모듬별 여행
오전	수안보 온천	범수네, 지수 형님네, 희정 쌤네	숯불 바베큐	천동동굴	단양시장	청풍호 유람선	의림지 집결
오후		부모님 식사 준비팀			부모님 식사 준비팀	부모님 식사 준비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16 쉬는 날	17	18	19	20	21	22 풍물 발표 준비
오후	5:00 입교하기	풍물전수					22 풍물 발표 3:00
	부모님 식사 준비팀						최범락 사부님
오전	23 학교 대청소 강릉으로 출발	24 집으로...	25	26	27	28	29
오후	바다로 가자!! 캠프 화이어!		가 정 학 습 입교 6월 30일 일요일				

격매전반의 하루 일과



시간	일정	비고
06:30~07:00	아침식사 준비 모듬 퇴소	
07:00~08:00	기상 및 청소(사용공간만),	함께 모여서 퇴소!
08:00~08:45	아침식사	식당
08:45~09:30	아침독서&열기 그리고 청소 당일 일정안내	카페
09:30~12:30	오전일과	
12:30~14:30	점심식사	
14:30~17:30	오후일과	
17:30~19:00	저녁식사	
19:00~20:00	자유시간	간식 모듬은 간식준비
20:00~21:00	간식먹기 및 주변 정리	하늘마루 다목적실
21:00~21:30	하루나누기 및 다음 날 일정안내	하늘마루 다목적실
21:30~22:45	취침준비	
22:45~	취침	

- 퇴소는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합니다. 하늘마루 운동장에 모여 함께 내려가요!
- 아침식사 후 청소는 식사당번을 제외하고, 학교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공간만 정해진 구역을 청소합니다.
- 아침 열기는 평소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합니다. 아침열기 할 때 가지고온 책을 읽는 '아침독서' 도 함께 합니다.
- 하루나누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느낌이나 생각 등을 나눕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치며 칭찬합니다.
- 취침은 기존 학교일정과 동일하게 밤 10:45입니다. 일과 중 비는 시간이나 나머지 시간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약속은 꼭 지킵시다.

{예외}

- 월악 캠핑, 단양 캠핑, 제천 모듬여행 및 청풍문화탐방 기간 그리고 주말에는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물전수 기간엔 밤일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역할 나누기

당번

하늘마루		학교	
기상당번		청소당번	
퇴소당번		식사당번①	
청소당번		식사당번②	
취침당번		식사당번③	
		식사당번④	
		식사당번⑤	

청소구역

하늘마루 청소구역			학교 청소구역	
화장실&샤워실	2	1	현관	2
복도	1	1	1층복도	1
방	2	1	도서관	2
현관	1		카페	2
정수기&계단	1	1	남생태	1
만남의 광장	1		여생태	1
다목적 실	1		분리수거	2
			강당	1
			소강당	1
			세척실	1

격매전반의 움직이는 학교 식단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6(목)			[교사] 제육볶음	[아이들] 소떡소떡
7(금)	[단골] 간장계란밥, 만두국	[캠핑] 게살, 계란	[캠핑] BBQ	수박
8(토)	[캠핑] 간단식단	[캠핑] 김치, 부침가루	[캠핑] 떡, 고추장	올갱이라면
9(일)	[캠핑] 간단식단	[매식] 김밥	[매식] 수안보	한 살림 빵 사과즙
10(월)	[아이들] 카레, 콩나물국	[마을일손 돕기] 각 가정	[부모님] 소박한 저녁상	[아이들] 모닝빵, 짬
11(화)	[두다다쿵] 김치볶음밥, 계란국		[함께하는 저녁] BBQ	[단골] 유자컵케익
12(수)	[아이들] 계란햄 볶음밥, 김치찌개		[캠핑] 닭가슴살, 체다치즈	제철과일
13(목)	[캠핑] 소시지, 야채	[매식] 단양 구경시장	[부모님] 소박한 저녁상	[두다다쿵] 버터구이식빵 &사과주스
14(금)	[단골] 고등어 구이, 된장찌개	[매식] 청풍	[부모님] 소박한 저녁상	[단골] 수박
15(토)	[두다다쿵] 감자치즈전, 근대된장국	[매식] 제천	[매식] 의림지	한 살림 푸딩
16(일)	[교사] 냉면		[부모님] 소박한 저녁상	[두다다쿵] 사과즙&과자
17(월)~ 21(금)	조리사 쌤들 이 수고해 주십니다.			미수가루, 수박, 자두, 아이스크림 등
22(토)	조리사 쌤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부모님] 파워타임~	
23(일)	남은 반찬 털기	[부모님] 도시락	BBQ	
24(월)	한 살림 라면	집으로...		

2019년 6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캠핑 (CAMPING)

캠핑이란?

텐트 또는 간단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야외 활동.¹⁾

목적

캠핑은 '야영' 이라고도 하며 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자연에의 적응력 및 협동정신, 자립정신과 지도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역사

야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물과 식량을 찾아 이동하며 살던 유목시대에 와서 보편화되었다. 그 뒤 농경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착하게 되어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가, 근대 이후 심신수련과 자연극복 등을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야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어디로 갈 것인지의 장소와 조건, ② 언제 실시할 것인지의 시기, ③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의 장비, ④ 어떻게 할 것인지의 야영방법, ⑤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표와 내용, ⑥ 누가 무슨 일을 맡을 것인가의 임무분담 등이 있다.

캠핑준비물

1. 5인용 텐트 4개
2. 바람막이 4개
3. 코펠 4세트 or 18인분 식기세트
4. 버너 / 레인지 4개
5. 바닥재 (돛자리)
6. 의자, 테이블
7. 개인준비물 - 배낭, 침낭, 세면도구, 속옷, 여벌의 옷, 물놀이 신발, 물놀이 복장, 수건, 수저세트, 필기도구, 워크북 (개인 약)등

1) 네이버 지식백과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천렵

단굴(단오, 규림, 지호, 지후, 기범)

주로 여름철에 하며 남자들이 즐기던 피서법의 하나이다. 냇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때로 농악이 따르기도 한다. 오늘날 천렵은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농촌에서만 행해지는데 과거에 비해 놀이문화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냇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며 헤엄도 치고, 또 잡은 고기는 술을 걸어 놓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때로 농악이 따르기도 한다. 천렵할 때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야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한다.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4월령에 그 내용이 소상히 나타나 있다.

원래 천렵은 고대 수렵사회와 어렵사회의 습속이 후대에 여가를 즐기는 풍속으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도 천렵은 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림 출처 [단굴]과재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산

두다다쿵[채영, 석현, 민지, 늘푸른, 지섭]

월악산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덕산면 월악리, 수산리
난이도:어려움
총 산행시간:4시간 25분
국립공원 월악산은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계곡의 정취를 간직한 곳이 많아 제2의 금강산 또는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며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을 비롯한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만수봉



높이 : 983m

특징 : 월악산의 주능선과 포암산의 연능 사이에서 솟은 암봉이다. 소백산맥과 함께 이어진 명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망대와 같은 산이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능선길이 여러 군데로 갈려 있다. 산세가 포

암산과 많이 흡사하며 산 중턱에 참나무 숲과 정상 부근의 고사목 아래 암벽지대가 아름답다.

소백산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경상북도 영주시와 봉화군에 이르러 위치함.

높이 : 1,440m

소백산은 한반도의 중심에 우뚝솟아 있는 산으로 백두대간의 장대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명산이다. 형제봉을 시작으로 신선봉, 국망봉, 연화봉, 비로봉 등의 봉우리가 웅장함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은 지리

산, 설악산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포함한다.

2019년 6월 9일 일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을 일손 돕기

전화 인터뷰



6월 10일 월요일에 진행될 마을일손 돕기를 위하여 세 모듬이 마을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화내용

<p>희정쌤네 (신진철님과 통화함) - 최규민과 아이들 간디학교와의 관계 - 딸 둘이 간디학교를 졸업하였다. 학부모로 관계 하고 있음. 마을에 살게된 계기 - 자연환경고 좋고, 농사를 짓기도 좋아서... 어차피 두 딸이 있는 곳이라... 덕산은 어떤 곳인가? 좋아요. 다른 시골보다 더 좋습니다. 키우는 작물 - 뽕나무(오디) 작물을 키우는 목적 - 작물은 키워서 가공을 한다. (쌤, 등등 판매가 목적이다.) 작물을 키우는 이유 - 오디가 키울 때 자연 친환경 적이고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키우기가 쉽다. 우리가 할 일 - 물과 거름을 충분히 주기!</p>
<p>지수형님 - 단골 간디학교와의 관계 - 자칭 동네 아저씨 마을에 살게된 계기 - 귀농하였음. 덕산은 어떤 곳인가? - 패스~~ 키우는 작물 - 수수, 오디, 석재나무, 엄나무, 두릅 작물을 키우는 목적 - 판매 작물을 키우는 이유 - 귀농, 직업 우리가 할 일 - 그물치기 앞으로의 농사계획 - 하던 것 그대로 함.</p>
<p>범수네 - 두다다콩 간디학교와의 관계 - 학부모 07학번 범수, 09학번 현정 아빠임. 마을에 살게된 계기 - 직장 생활이 순탄치 않아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이사는 언제 오셨는가? 2010년 2월에 이사함. 덕산은 어떤 곳인가? - 덕산은 산이 많아 산골 느낌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좋아서 살기 좋다. 키우는 작물 - 여러가지 작물을 키우는 목적 - 가정에서 먹고 남은 것은 판매함. 작물을 키우는 이유 - 주변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할 일 - 팔을 심고 마늘종 뽑고 고추대를 묶는다. 마늘을 심는 방법? - 흙을 넣고 밭을 간 후 마늘을 심는다.</p>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단양팔경

최규민과 아이들 [규민, 아란, 소은, 룡수, 동연]

단양팔경이란?

단양군에 있는 8가지 명승지를 말한다.

단양 8경은 단양 남쪽의 소백산맥에서 내려오는 남한강을 따라 약 4km 거리에 있는 하선암, 10km 거리에 있는 중선암, 12km 거리에 있는 상선암과 방향을 바꾸어 8km 거리에 있는 사인암, 그리고 단양에서 서쪽으로 8km 거리에 있는 구담봉, 9km 거리에 있는 옥순봉과, 단양에서 북쪽으로 12km 거리에 있는 도담삼봉 및 석문 등을 말한다.

1~4경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은 제 1,2,3경으로 계곡의 맑은 물과 바위가 어울릴 뿐 아니라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제4경인 사인암은 암벽이 꽃병풍을 두른 듯 치솟아 있고, 그 아래는 맑은 물이 있다.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사인암

5경

제5경인 구담봉은 남한강 줄기를 따라 장엄한 기암 괴석으로, 그 형상이 마치 거북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벽의 생김새도 뛰어나지만 푸른 강물과 주위의 봉우리들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구담봉

6경

제6경인 옥순봉은 봉우리들이 마치 비온 뒤의 죽순처럼 솟아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경치가 빼어나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렸다.



옥순봉

7경

제7경인 도담삼봉은 남한강 상류의 강 가운데 있는 세 개의 기암으로 된 봉우리를 말한다. 세 봉우리 가운데 남봉은 첩봉 또는 딸봉이라 하고, 북봉은 처봉 또는 아들봉이라 한다. 중간봉 허리에는 1972년에 세운 정자가 있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담삼봉

8경

마지막 제8경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너비 15~20m에 달하는 거대한 석문으로 산 위에 걸쳐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이 석문 부근에는 천연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된 촉백나무들이 있다



석문

천동동굴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물에 의한 용식(溶蝕)으로 생기는 동굴이다. 석회동굴이나 종유동이라고도 한다.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대에서 이산화 탄소가 섞인 빗물이나 지표수가 석회석의 틈으로 침투하거나, 그 지대를 흐르는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으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물과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여 물에 잘 녹는 탄산수소칼슘이 되면서 석회암 지대에 침식이 일어나게 되며, 이 과정이 계속되어 물이 석회암 지대를 계속해서 침식하면서 석회암 동굴이 생기게 된다. 카르스트 지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형 중의 하나이다.

단양 천동동굴은 어두운 회색을 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로 총 길이는 200m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 졌다.

동굴은 입구가 좁아 기어 들어가야 하며, 반달모양의 공간 안에는 고드름처럼 생긴 종유석과 동굴 바닥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가 펼쳐져 있다. 세로로 땅속 깊이 뻗은 굴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석순이 많다. 또한 맑은 지하수가 고여 있는 3개의 물 웅덩이 안에는 둥근 포도알처럼 생긴 포도상구상체가 있으며, 꽃쟁반이라 불리는 석회암으로 된 바위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성물이다.

동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돌고드름과, 넓게 퍼져있는 돌주름, 그리고 가늘은 종유석들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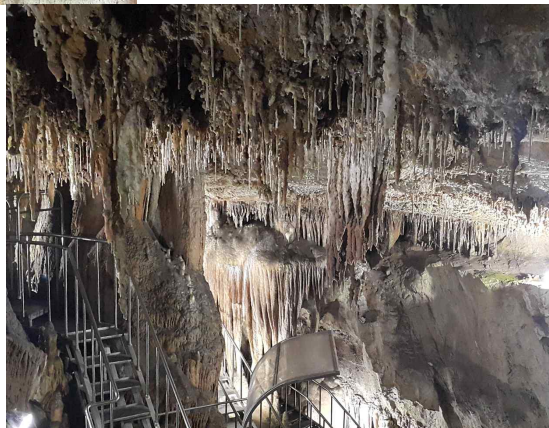
용어설명

종유석(鐘乳石): 지하수에 용융된 석회 성분이 고결되어 만들어진 고드름 모양의 암석.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CaCO₃)이 이산화탄소(CO₂)를 함유한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칼슘(Ca(HCO₃)₂)을 만든다. 전체 반응식: CaCO₃ + 2H₂O + CO₂ → Ca(HCO₃)₂ + H₂O

이 용액이 종유동의 천장에 스며 떨어질 때,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수분이 공기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다시 탄산 칼슘의 결정으로 침착(沈着)하여 고드름 모양의 종유석을 이루게 된다.

석순 & 석주: 종유석 바로 밑의 동굴 바닥에는 종유석에서 떨어진 지하수에 의해 종유석과 같은 성분으로 된 석순이 형성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종유석과 석순이 충분히 자라나 서로 만나 석회 기둥을 형성하는데 이를 석주라고 부른다.

휴석: 석회동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마치 남해의 다랭이 논 같은 모양이다. 휴석은 지하수가 동굴 바닥을 흘러갈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형성된다. 지하수가 지면의 특정한 부분에 부딪히면 지하수가 그냥 흘러가는 경우보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광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여 나중에는 마치 논두렁과 같은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MEMO



시장에 가면!! - 미션 임파서블!!!

력매전반이 단양 구경시장에 떴다!!

오늘은 어떤일로 구경시장에 온것일까!! 그렇다! 그들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한다. 오늘 그들이 먹게될 음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친구들 점심을 맛있게드셨나요? 점심을 배부르게 먹은 후 후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단양 구경시장에는 단양에서만 파는 특이한 간식거리가 많답니다.

그 간식 중 사진에 있는 후식가게에서 인증샷을 찍은 후 먹방을 야무지게 찍어 보아요~~ 단! 먼저 간 모듬이 있는 가게에서는 찍을 수 없어요. 그점 유의하셔서 진행 하세요~ 그럼 준비 되었나요?

친구들 오늘 구경시장에서 먹게될 음식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 도담삼봉 석문빵

2. 찰보리 흑마늘 빵



3. 단골 수제 고로케

4. 마늘 만두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청풍 문화재 단지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이용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청풍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물이 번성했던 곳으로 많은 문화 유적을 갖고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청풍면 후산리, 황석리, 수산면 지곡리에 있던 마을이 문화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있었다. 충청북도 청에서는 1983년부터 3년간 수몰 지역의 문화 재를 원형대로 현재 위치에 이전, 복원해 단지를 조성했다.

문화재 단지에는 향교, 관아, 민가, 석물군 등 43점의 문화재를 옮겨 놓았는데 민가 4채 안에는 생활 유품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고려 때 관아의 연회 장소로 건축된 청풍 한벽루(보물 528)와 청풍 석조여래입상(보물 546) 등 보물 2점과 청풍부를 드나들던 관문인 팔영루(충북유형문화재 35), 조선시대 청풍부 아문인 금남루(충북유형문화재 20), 응청각(충북유형문화재 90), 청풍향교(충북유형문화재 64) 등 건축물 및 옛 도호부 시대의 부사나 군수의 송덕비, 선정비, 열녀문, 공덕비 등이 세워져 있다.

한벽루에서 충주호가 한눈에 보이며 주변에 비봉산, 구담봉, 옥순봉, 능강구곡, 금수 산, 단양팔경, 월악산국립공원, 수안보온천 등의 관광지가 있다.

* 제천 청풍 한벽루 (보물 제 528호)



* 제천 청풍 응청각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모듬별 제천 탐방

오늘은 모듬별로 제천여행을 떠나는 날!!

우리 력매전반 친구들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회규민과 아이들 → 규민이와 떠나는 제천여행

삼소라 분식집 - 나들가게에서 **9시 25분에 970번 버스**를 타고 제천 고속버스터미널에 내립니다. 거기부터는 걸어서 제천 중앙시장을 가서 삼소라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간식먹고 구경합니다. 빨간오뎅도 먹습니다.

제천중앙공원 - 걸어서 6분거리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랜덤게임과 슬래잡기 등을 합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 **31번 버스**를 타고 의림지 정류장에서 내려 의림지역사박물관에 갑니다.

달보드레-나머지 시간은 달보드레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산 - 15,000원 X 5명 = 75,000원 중앙시장에서 먹거리 30,000원 박물관 관람 5,000원 카페 25,000원 남은돈은 버스비

두다다쿵 → 두쿵의 맛집투어

서울분식 - 나들가게에서 **9시 25분에 970번 버스**를 타고 세명대 후문에서 내립니다. 거기부터는 걸어서 제천 중앙시장을 가서 시장구경과 함께 '서울분식'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중앙공원 - 걸어서 중앙공원까지 갑니다. 중앙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 공원에서 세명대 후문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의림지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갑니다.

파티오 - 시간이 남으면 의림지 근처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산 - 15,000원 X 5명 = 75,000원 라면 즉석떡볶이, 튀김등 30,000원 카페 40,000원 차비 5,000원

단굴 → 놀고 먹는 단굴

중앙시장 - 중앙시장에서 구경을 한다. 빨간오뎅도 먹는다.

삼소라 분식 - 점심으로 분식집에서 식사를 한다.

중앙공원 - 걸어서 중앙공원까지 갑니다. 중앙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의림지 - 공원에서 놀다가 5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예산 - 15,000원 X 5명 = 75,000원 버스비 1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먹는 것에 씀.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사물놀이

(사물놀이)란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네 가지 농악기로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이다. 또는 이러한 편성에 의한 합주단이다.

원래 사물이란 불교의식에 사용되던 악기인 범고(북), 운판(식사시간을 알리려고 치는 금속판), 목어(절에서 불사를 할 때에 두드리는 기구), 범종(절에 있는 큰 종)을 가리키던 말이었으나, 뒤에 범패(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의 바깥채비 소리에 쓰이는 태평소·징·북·목탁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었다. 그리고 다시 절 걸림패(집집마다 다니면서 풍악을 울려 주고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하여 조직한 무리)의 팽과리·징·장구·북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편성에 따른 음악은 1978년 최초로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연주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의 농악을 다루는 연주 기량은 아주 뛰어나고, 농악을 무대용 음악에 알맞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농악의 생동하는 음악성과 치밀한 연주 기교는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고, 해외 연주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여러 사물놀이 합주단을 만들어 활동을 하면서 최초의 이들은 원사물놀이패로 불리고 있다. 이들이 주로 연주하는 음악은 호남우도농악· 짝 두름· 설장고놀이· 비나리· 판굿· 삼도농악· 길군악칠채 등이다.

이들은 호남우도농악에서는 호남우도농악 판굿의 처음에 나오는 오채질굿·좌질굿·풍류굿·양산도· 세산조시를 연주한다. 짝두름에서는 상쇠와 부쇠가 쇠가락을 한 장단 또는 반 장단을 주고받는 가락이며, 호남좌도농악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의 짝두름을 함께 구성하여 연주한다.

설장고는 본디 장구채비 혼자 서서 발림(노래하는 사람이 소리를 극적으로 전개하

- 15

기 위해 하는 몸집, 너름새)을 하며 독주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악사 네 사람이 저마다 장구를 앞에 놓고 앉아서 설장고가락을 제주(여러 악기가 동시에 같은 선율을 연주함) 하되 대목마다 짝 가락을 연주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비나리는 걸림패들의 고사소리 덕담에 대한 은어인데 지역마다 그 양식인 토리(지방에 따라 구별되는 노래의 투)가 다르게 되어 있어, 이들이 연주하는 비나리는 충청도 동북부, 경기도 남부, 강원도 서남부 지역의 걸림패들이 부르는 고사선염불과 덕담, 그리고 뒷염불이다.

삼도농악은 삼남지방의 농악가락을 편성하여 연주하는 것인데 주로 영남지방과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쇠가락을 적당히 구성하여 연주한다. 길군악칠채는 경기도 행진농악인 길군악칠채를 합주한다.

크게 인기를 얻게 되자 사물놀이 단독연주뿐만 아니라 무용 반주, 서양 오케스트라와 협연, 재즈와 협연 등 여러 가지로 응용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을 포함한 모든 한국음악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특히 타악기 전공자들에게 준 영향은 타악기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오늘의 날씨는?

오늘 무엇을 했었는지 적어 봅시다.

그것을 하면서 느낀점이나 감정을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부록

석회동굴

단양에는 석회동굴이 많이 분포한다. 현재 개방된 동굴로는 고수동굴과 온달동굴,천동동굴등이 있으며 노동동굴은 최근 오염 때문에 폐쇄되었다.

그 외에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동굴생성물이 자라고 있는 에덴동굴은 동굴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 주민이 오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찾은 동굴이라고 전해지는데 그는 이 동굴이 공개되면 회손이 될까봐 22년동안 입을 굳게 닫고 계시던 어르신의 깊은 뜻 뵈속깊이 느껴진다. 나는 고수동굴과 온달동굴을 예전에 가보았는데 그때 당시 동굴에서 종유석을 함부러 만지고, 동굴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로 옛날에 아름다웠던 온달동굴은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할만큼 오염이 굉장하다한다. 아무튼 자연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굴과 동굴외의 자연을 소중히 하자.

단양의 석회동굴 대부분은 중앙 고속도로 기준으로 북동쪽에 분포하고 있다. 석회동굴이 생성될 수 있는 기반암의 분포 때문이다. 석회동굴은 그 이름대로 석회암 지역에서만 형성되는 동굴이고 단양에서는 남한강을 끼고 소백산의 북동쪽으로 석회암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양엔 이런 아름다운 석회동굴이 분포가 된 것이다.

동굴

김지후

사람들이 모르는 체 23만년이 지난 동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농부는 이 동굴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동굴이 알려지면 23만년 보존되었던 이 동굴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농부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에 휩싸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궁금증을 없애고 싶어서 결국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을에선 비밀로 하는데... 하지만 모두가 비밀을 지키진 않았습니다.

소문이 새고 새어서 한국 동굴 연구소까지 새어서 연구소에서 인력을 보내서 그 동굴을 조사해 보려고 하지만 마을 단체에서 이 일을 막아 지금의 2019년까지 보존되어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이유

사실 처음에는 기대가 되지 않았다. 산도 가고 뭔가 일정이 굉장히 짝짝 차 있을 것 같고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무빙 회의를 하고 일정을 확실히 알고나니 생각이 완전 달라졌다!

먼저 추억이 굉장히 많이 쌓일만한 일정 캠핑, 수영장, 단양여행 등등... 사실 모든게 다 추억이 될것같다. 같이 밥도 준비하고, 평소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5명이서만 여자 기숙사를 쓰고 다 너무 기대된다. 풍물을 1주일동안 배운다는것도 너무 기대되고 내가 무엇을 칠지도 궁금하다.

무엇보다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는게 너무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컸는데 그것도 힘든 것 나름대로 추억이 될 것 같다. 특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온천을 간다는데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개운하다! 이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것을 꼽자면 다 재미있을 것 같지만 사실 큰 것 보다 작고 소소한게 더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다같이 모여서 노는 것이 가장 기대된다.

동굴

여민지

나는 동굴에 가본적이 있다. 바로 고수동굴이다. 언제 가봤냐면 5학년때 간디여름 캠프에서 가봤다. 참 좋은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동굴은 노란 게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주 시원했다. 그리고 좁았고 물 같은 게 고여 있었는데 예뻐다.

고수동굴 들어가기 전에 동굴용 장갑을 주셨는데 그 장갑은 오돌토돌 하고 약간 살면서 활용도가 좋아보였다. 난 동굴에서 나오고 장갑을 아저씨가 걷을 줄 알았는데 안 걸었다. 그리고 어떤 쓰레기통 같은 거에 넣는 거였다. 근데 난 솔직히 그 장갑 갖고싶었다. 하지만 양심껏 갖지 않았다. 버리는 거였다면 난 정말 가졌을 거다. 어쨌든 그랬다ㄴ.

나는 아까 무슨 렉매전반끼리 무빙준비할 때 책 읽을 때 동굴 얘기가 나왔는데 난 사실 그 동굴 얘기가 뭐라는지 생각이 1도 안 난다. 안 읽은건 아닌데 그냥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다. 진짜 동굴이었던거 말고 기억이 안 난다. 동굴 사진은 봤는데 동굴 내용은 없었던 듯. 사실 있는데 그 그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그 어려운 책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인 가!! 그리고 내가 그 것에 대해 흥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근데 왜 동굴을 주제로 했냐면 고수동굴에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언제 오키나와에 갔을 때 그 전쟁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숨었던 큰 동굴에 들어가 본 적

있다. 하지만 얼마 못 가고 다시 나왔다. 그래서 거의 안 간 거나 다름없다. 어쨌든 난 동굴에 대한 기억은 거의 고수동굴 밖에 없다.

생각해보니 한번 더 있다. 유치원 졸업여행때 동굴에 가봤다. 완전 어두컴컴하고 관광지 가 아니었다. 약간 숨겨져 있는 곳 이었다. 완전 깜깜했고 완전 신기했다. 그리고 어떤 남자 두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후레쉬로 비춰줬다. 어쨌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동굴은 이게 다다. 이제 쓸 게 없다.

동굴은 참 어두운 것 같다. 사실 뭔가 안 재밌을 것 같다. 재밌으면 좋겠지만... 재밌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 그래도 좀 재밌겠지...? 기대되는 점은 딱히 없다. 그래도 재밌겠지??

대한 나의 생각

김단오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은 되게 어둡고 축축하며 음습한 곳을 상상하게 된다. 실제로도 동굴은 어둡고 습하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때문에 동굴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생명체들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빛을 비추어 보면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어둡고 습한 환경이, 석화, 종유관, 흑백유석, 석순, 휴석, 커튼 등의 조화가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고 표현해도 흠이 없다. 그리고 동굴에서 성경이 기록된 사건도 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동굴에 숨었다가 사울을 공격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어가서 사울에게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들어냈다. 이렇게 동굴은 동물이나 사람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 동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누구나 마음의 동굴이 있다.

임소은

오늘 나는 동굴에 갔다. 동굴에 가보니 동굴이 꼭 나의 마음 같았다. 동굴은 어둡고, 너무 어두워서 안쪽에는 어떤 생물이 있고, 내무에 생김새를 볼 수 없다. 누구나 동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닫혀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게 꼭 나의 마음 같다. 문은 열려있지만 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또 상처가 나있는지 동굴의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굴은 너무 어두우니까 중간중간에 불이 켜져있다. 나도 남들 앞에 중간중간 불이 켜져있다. 동굴은 어두워서 무섭고,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있을지 궁금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도 있어서 내 동굴에 찾아온

나에게는 동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갑다. 그러니까 동굴도 많은 사람이 오는게 좋겠지? 밤이 되면 나는 하나둘씩 동굴에 켜져있는 불들을 끈다.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만약 불을 켜두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나의 동굴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동굴은 엉망진창. 어쩔 수 없이 내일 또다시 동굴의 문을 열기위해서 나 혼자서 깊고 어두운 동굴을 관리한다.

동굴에 상처가 없는지. 아름다운 것이 창조되었는지 자세히 또 천천히 살펴본다. 그러다 보면 어제와 살짝 다른 동굴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일 혼자서 이렇게 깊고, 어두운 동굴을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굴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 ' 이다.

동굴을 관리하고 나면 '동굴관리일지' 를 쓴다. 바로 일기이다. 동굴관리일지를 쓰고 나면 과거 나의 동굴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그 일지를 보면 '아 이때는 이랬었지...' 라고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동굴이 있다. 다만 동굴모양이 다를 뿐이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동굴을 혼자 관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혼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오늘 동굴 어떤 사람들이 왔어? 오늘 동굴의 상태는 어땠니?" 이렇게 동굴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제부터 나는 동굴을 혼자 관리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것이다. 나는 그저 아무도 혼자서 동굴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굴

백늘푸른

무빙 준비중에 과제로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 동굴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동굴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동굴의 뜻은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큰 굴이라는 뜻이다.

수많은 동굴 중에서도 국내와 해외에서 유명한 동굴들이 있다. 해외에는 프랑스에 콕스 동굴, 호주에 있는 제놀란동굴, 이탈리아에는 카스텔라나 동굴 등이 있다. 국내에는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충북 단양에 있는 고수동굴, 제주시에 있는 만장굴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아름다운 동굴이 많았다.

더 찾아보니 특별한 유래가 있는 동굴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온달동굴은 과거에 온달장군이 수양하였다는 전설이 남아있어 온달동굴이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제주에 있는 용천 동굴이다.

이 용천동굴은 크기가 큰 대형동굴이어서 예로부터 대형동굴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고 신철주 북 제주군수는 이 전설에서 용자를 따고 동굴에서 발견된 거대한

선자를 붙여 용천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용이 하늘로 승천한 호수가 있는 동굴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유래가 붙어있는 동굴도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굴이나 보존이 잘 되어있는 동굴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거나 출입이 제한된다. 그에 반 해 출입이 제한된 은밀한 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다.

첫 번째로 강원도 정성구에 위치한 용소동굴이다. 천연기념물 549호 국내 수중동굴 중 가장 큰 규모로 홍로길이 250m 수심은 약 50m 이다. 산골마을에 작은 유물 정도로 알고 있던 용수동굴의 실내는 2011년 한국동물 연구소와 nepa 스쿠버덜 의 합동조사로 밝혀졌다. 석회암 지역의 지하수 움직임과 석회동굴의 형성과정 등을 포함한 학술적 가치는 물론, 지하수 동굴의 종 증가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런 이유들과 항상 물이 차 있는 수중동굴이니 만큼 2015년 공개 제한이 되어 일반인이 무단출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입구가 따로 없어서 외부에 누출되지 않아 32만년 전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농부의 의해 발견된 110m 짜리 짧은 동굴이었으나, 이후 시추조사를 통해 동굴이 발견되며 총 길이는 290m 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용암동굴이지만, 동굴 위 조개모래로 인한 2차 생성물로 석회동굴은 방불케 한 종유석과 석순, 석주등이 특징이다. 그래서 2001년 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에서 부분적인 공개 제한조치가 이뤄졌고, 학술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서 까지 찾아보면서 이 기회를 동굴이라는 곳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런 동굴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대되는 이유

서지호

이번 부빙 준비를 통해 제천의 역사, 지리, 전설을 배우게 되었다. 사실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1학년 무빙은 학교에서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리같은 걸 배울 줄도 몰 다. 그런데 사실 1학년 야영장까지 가기로 되어있어서 이걸 배워둬야 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긴 글을 읽었다.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조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읽다가 중간 중간 놓치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렇게 글을 읽는데 제천은 참 역사가 신기한 곳이었다.

전쟁 때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여 적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이곳은 정말로 이상하다. 그리고 몇천만년 전에 이곳이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다속에 있던 땅이 올라왔다고 한다. 전에 이곳에는 석회암이 운동장에 나 텅굴정도로 넘치게 많다. 감탄이 되는 동시에 졸음이 몰려왔다... 잠깐 졸았다.

아, 그리고 제천은 산이 굉장히 많았다. 다 외우지는 못해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유명한 인솔들의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여기 퇴계 이황의 이야기까지 얹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 그리고 더 신기했던건. 동구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동굴에 대해서 배웠다. 종로 석과 석순, 그것들이 만나 만들어지는 석주등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매우 길게 배웠다... 내 글은 여기까지다. 내 생각만 너무 많이 쓴건 아닐까... 한다, zz

기대되는 이유

이룡수

나는 무빙이 기다려진다. 무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빙 때에 시간표를 보니 엄청 뻑뻑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표 짜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엄청 뻑뻑하게 차있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리고 1학년 무빙은 학교에 1학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같으면 형 누나들 때문에 눈치만 보는데 형 누나들이 없기 때문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산 올라가는 날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산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산에 자주 데리고 가셨기도 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도 한다. 나는 물을 좋아해서 물놀이는 대환영이다. 그리고 풍물도 한다. 풍물은 개인적으로 보기만 했지 직접 쳐보지는 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수렵 천렵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산야초를 만드려고 해서 그것도 기대된다. 당번 정해지는 것도 기대된다.

무빙이 기대되는 점

최규민

야! 무빙이 다가오고 있다! 하하하 1학년 무빙은 내가 느끼기엔 정말 재미있을 거 같다. 왜냐하면 딱! 상상만 해보자 학교와 기숙사에 우리 1학년만 남고 다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 뭔가 학교와 기숙사에서 1학년이 대왕인 듯 한 느낌이 들 거 같아 재미있을 거 같다 아마도?

그리고 처음해보는 풍물! 하지만 마지막에 공연을 한다니! 걱정되기도 한다. 음... 그렇다 또 아 이것도 처음해보네 음... 그래 천렵과 수렵도 무척 기대가 된다 근데 말이다 그 개울에선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 된다 에라이!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말은 무빙이 기대된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결론은 그냥 무빙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끝!

기대되는 점

무빙이 기대되는 이유는 일단 첫 무빙이라서 기대가 엄청 많이 돼요 첫 무빙이 언니들 말로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든지 처음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언니들 말로는 풍물을 한다고 해요...! 조금 자신 없지만 재밌을 거 같아요. 그리고 조 활동은 될까 기대 되네요. 그리고 1학년 무빙은 학교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 우리만 있으면 좀 썰렁하면서도 좋을 거 같아요.

무빙 때 안 친하던 애들이랑 친해진다는데 재밌을 거 같아요. 이참에 남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네요. 처음엔 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리고 '력매전반' 에 남자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5명이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떤. 면으로는 재밌을 거 같네요. 무빙이 기대되는 점은 여기서 끝낼게요!!

무빙이 기대되는 점

이기범

나는 무빙이 기대된다. 왜냐하면 내 인생 첫 무빙이기 때문이다 무빙에서 제일 기대되는 것은 캠핑이다. 왜냐하면 캠핑 간 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무빙에서 산을 가는 것은 너무 싫다.

선생님이 말하기엔 무빙을 하는 이유가 '간디학교에 등지 틀기' 라고 하셨다! 나는 1학년 무빙도 너무 기대되지만 3학년 때 무빙이 더 기대된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기 때문이다. 2학년 형들에게 1학년 무빙 어떠냐고 물어보니 같이 다니는 친구가 딱 나뉘었다고 했다. 또 신기한 것은 100명 중에 15명과 선생님들이 남는다는 것이 그렇다. 엄청 허전할 거 같다. 1학년 첫 무빙이 기대가 된다.

무빙이 기대되는 점

김동연

일단 산을 가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이유는 올라갈 때는 비록 힘들겠지만 올라가보면 뿌듯하고 기쁠 것 같다. 그리고 기숙사에 1학년들만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놀고 같이 자기도 하고 형들 눈치 안보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놀 수 있으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단양 여행을 우리끼리 가서 재미있게 노는 것과 새롭게 안 가본 곳을 가보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장구, 징, 북 등 풍물을 새롭게 배울 수 있으니 기대가 된다. 산야초를 만드는 것도 아주 기대가 된다, 그리고 수영장을 가서 놀아서 너무 좋다. 솔직히 수영은 다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온천 간다고 해서 너무 좋다.

밥을 먹을 때 라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많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다. 이유는 싸우면 사이도 많이 어색해지고 심하게 싸워서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놀지도 못하고 회의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재미있게 놀면 좋겠다

박석현

한 동굴에 흡혈 박쥐가 있었다. 한 나라에는 왕이 아팠다. 하지만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었고 죽을려고 할 때 어떤 의사가 와서 흡혈 박쥐 한때 목을 물리면 병이 낫는다 해서 박쥐한테 가서 물렸더니 그냥 죽었다.

그래서 이 틈을 노려 의사가 왕이 되었다. 한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였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한 청년이 동굴에 들어 가보니 물이 있었다. 그 청년은 자기만 먹는다는 식으로 몰래가서 혼자 먹었다. 하지만 거긴 신들의 수영장이었고 청년이 먹은 걸 알고 신들은 박쳐서 그 마을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계속 차올라서 바다가 되었다

동굴

이채영

오늘 무빙 회의 때문에 모여서 못했던 PPT 발표도 하고 제천과 단양의 여러 관광지, 얽힌 전설 등을 담은 책을 돌아가면서 읽다가 단양의 고수동굴과 천동동굴, 온달동굴 이야기가 나왔다. 고수동굴은 갔을 때 본 풍경은 그리 예쁘진 않았었던 거 같다. 생성물을 다 잘라 버렸기 때문이다. 나머지 동굴을 가보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내가 생각한 정도는 이 정도다.

1. CCTV 설치 -> 음.. 피해 갈 수는 있지만 한 두건은 걸리지 않을까
2. 소지품 검사 (검사대, 공항처럼) -> 예산이 많이 듦.
3. 통로에 유리벽 설치 -> 그나마 나음.

이 외에도 좋은 방법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하나 실천하다 보면 더 이상에 훼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동굴을 위해서라도,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에 훼손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줬으면 한다.

(무빙이 기대되는 점 & 걱정되는 점)

걱정되는 점 -> 싸움/피곤 할 거 같음/집에 못 감/밥

기대되는 점 -> 친목 다지기/내가 안 가본 곳을 감/ 풍물

다 좋을 거 같긴 한데, 제일 기대되는 건 풍물이다. 재밌을 거 같다! 어쨌든 해보면 알게 되겠지 ㅋㅋ

어린 시절, 이름 모를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다. 정확히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중학교에 입학했을 즈음이었던 것 같다. 그 시절, 냇가와 뒷산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노는 것이 일상이던 탓에 마을 주변에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울창한 산림에 나만의 등산로를 만들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몇 걸음 되지 않는 언덕을 히말라야에 빚대어 정복하곤 했다. 등산로를 오를 때면 나는 깊은 산골로 향해가는 순례자가 되었고, 언덕을 오를 때면 히말라야 완등을 시도하는 산악인이 되었다. 그 시절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새롭게 발견한 미지의 공간이 바로 그 동굴이었다.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 동굴은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발견되지는 않은 곳이었다. 시골 마을이라면 으레 하나씩은 있는 전설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어른들은 으레 그곳으로 발길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단속시켰고, 구전동화로 이야기를 엮어 그곳으로의 접근을 차단했다. 신성한 곳임과 동시에 금단의 공간이었고,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세계였다. 그래서일까. 내 발걸음은 계속해서 그 동굴로 이끌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다. 세계로부터 나를 완전히 고립할 수 있는 공간, 누구도 가지 않았지만 나는 가본 공간, 나만의 비밀.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동굴 주변에는 등치가 성인 남성의 한 아름은 될 나무들이 켜켜이 쌓인 책들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넝쿨 식물들이 에워싸고 미장을 하고 있는 탓에 바닥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늪과 같았다. 울창한 나무들 탓에 별이 잘 들지 않고, 음습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런 탓에 선부른 접근은 그 주변에 이르러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다부진 의지와 모험심으로 옹골차 있던 나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사실 두려운 감이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던 것은 얼음골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그곳을 멀리하게 하기 보다는 끌어당기는 것과 같았다. 동굴로 향하는 그 길은 나를 견인하는 마력을 지닌 듯 했고, 나의 눈빛은 두려움을 한켠에 숨긴 채 덜 마른 장작이 천천히 타들어 가듯 꾸준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길쭉한 막대기 하나를 무기 삼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이따금 가시넝쿨에 걸려 팔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땅이 잘 보이지 않는 탓에 걸음이 더뎠고 발목이 접질릴 뻔한 것을 몸을 눌러 막아냈다. 그러기를 한 시간여. 바닥을 이루던 넝쿨들이 위에서 아래로 머리칼처럼 흘러내리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언뜻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은밀히 은폐된 공간이 조용히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 했다. 오래 전에 걸쳐놓은 듯 한 색색의 새끼줄이 나를 끌어당겼다. 그 줄을 넘어들면 나만의, 비밀의, 최초의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생각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그곳에 발을 들이고, 우거진 산림에 상처 입은 막대기와 팔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정도 별이 열어질 즈음이 되었을 때 이윽고 내 귀를 때리는 액체 소리. 그 소리를 뒤따라 신발을 비집고 들어오는 차가운 물. 한여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가움이 내 몸을 감싸고 오던 그때, 나는 아차하고 말았다. 이끼가 끼어있던 물 속 돌을 밟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웅덩이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물이 사방으로 튀며 동굴 전체는 소리가 사방에 부딪히면서 고요했던 동굴을 가득 채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잠시 찾아들더니 폭풍우가 몰려드는 소리가 일몰 때 어둠처럼 밀려왔다. 천둥소리와 돌풍소리를 섞어 놓은 듯한 소리가 동굴 깊숙한 부근에서부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점차 소리가 커지더니 칼바람이 얼굴을 쓸고 가듯이 내 주변을 뒤흔던 물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쥐들이었다. 책으로만 봐왔던 박쥐들이 때로 내 주변을 스쳐지나갔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쥐들의 뒤를 눈으로 쫓았다. 희미하게 보이던 그 숨 막히는 달음질은 내 사지를 굳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나 외에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이가 있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감각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와 금기의 영역에 대해 품고 있던 알 수 없는 경외감이 그런 식으로 체현되었기 때문일까.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 그 사건이 생각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깨어났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산을 뒤지고 냇가를 떠도는 일을 점차 그만두게 되었다. 흥미를 잃었거나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 동굴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남은 까닭에 그곳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다.

나만의 동굴이 내 마음 속에도 생겨나버린 듯한 기분. 오로지 나만의 공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그 사건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게 나의 사춘기는 낙엽을 떨구고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의 별빛~

이정상

"칫! 이게 모야~ 아무것도 없잖아~~"

"맞어! 하나도 안보이겠네!"

"그러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그냥 들어가자!"

"맞어맞어! 네마리 네마리~ 망원경도 없는데 별은 무슨 별이야! 우리 그냥 들어가서 라면이나 먹자고 말하자~ 어?"

일정이 힘들기도 했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나름 컸기에 또렷하지 않은 하늘을 보면서 푸념 섞인 말들만 많아져 갔다.

"...음! 그래도 저 구름이 걷히면 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번 기다려 보면 어떨까? 어?"

"야! 구름이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데 저게 언제 걷히겠냐? 그리고 모기는 또 어떻게 할건데? 난 싫어! 그냥 들어 갈래~"

"그래 맞아! 아님 당번을 정해서 누가 남아 있다가 알려주던가~ 그럼 남고싶은 사람이 하던가! 네가 할래?"

"어? 나? 아니아니~ 내가 왜?"

"그래도 미션이잖아! 안 해도 돼나? "

그래도 망설임은 잠시, "야!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보보~보! 오예오예~ㅋㅋㅋ 역시역시~^^"

그렇게 모두는 방으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상원이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상원이는 혼자 남은 이 밤이 무섭지도 짜증도 나지도 않았다. 아니 사실은 별 생각이 진짜로 없었다. 소나기가 내려서인지 촉촉한 여름의 밤 공기~

"상원아! 왜 혼자있어? 애들은 다 어딴데?"

" 쌤~ 애들이 다 나오긴 했었는데 구름이 많아서 별이 하나도 안보인다고 당번이 남아서 별이 보이면 알려주기로 해서 들어 갔어요."

" 뭐라고? 그래서 네가 당번인거야?"

"네~"

선생은 마당 한켠에 있던 평상을 킁킁거리며 옮기려 했고, 상원이 도와줘서 그리 크지 않은 평상은 마당 가운데로 옮겨졌다.

"고맙다~ 상원아! 근데 촉촉한 여름 밤이고만~ 그래, 잘 있었나? 알비레오~ㅋ"

선생은 팔베개를 하면서 평상에 누워 보이지도 않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고, 옆에 있던 상원이도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물었다.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쌤은 뭐가 보여요?"

"어? 그냥~ㅋ"

"쌤은 별 많이 알죠? 저는 별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딱 한번 천문대에서 목성을 봤을 뿐인데 그게 좋아서 나름 별을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딱히 별 볼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쌤이 해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 ~ 감성적인데? 상원이 멋지다잉~^^ , 근데 살원아 그거 아냐? 밝은 별들은 여름하고 겨울에 특히 많은데 오늘처럼 여름에는 이런 날들이 많아서 어렵고 또 겨울에는 눈오고 추운 날들이 많아서 사실 관측이 그리 쉽진않아~ 그래도, 야야! 야~ 저기봐라 저기! 오~ 견우랑 직녀가 나타났다. 근데 너 저기 구름처럼 보이는데 구름하고 약간다른 희뿌연한게 보이냐?!"

"와~~ 네! 보여요!"

"저게 은하수야!"

"정말요? 저게 은하수예요?? 와~ 멋지다!"

둘을 웃게 만든 지금 이순간의 하늘엔 구름이 스쳐지난 빈자리에 거문고자리 베가와 독수리자리 알타이르가 영롱하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별의 아이들

송민혜

그들은 8개의 행성에서 온 15명의 아이들이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한곳으로 모여 커다란 별을 만들기 직전이다.

한 곳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직전에 그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역시 의견이 잘 안 맞는다.

그중 파트라슈 별에서 온 지섭이는 항상 늦는다. 그리고 미션에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맑다. 다른 아이들은 지섭이를 잡으러 다닌다. 그러나 지섭이는 잡히지 않는다. 지섭이는 자신이 잘 피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안다. 그러면서 일단 눈감아 준다.

같은 파트라슈 별에서 온 채영이는 그런 지섭이를 챙겨주다가 지쳤다. 지섭이가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를 감싸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며 열심히 갈구다가 지금은 지쳤다. 채영이는 생각한다. 어쩌면 지섭이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노력을 알아줄 거라고...

한편 옆의 행성 미네랄에서 온 지후는 다리를 다쳐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시금 자신이 살고 있던 머나먼 행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후는 자신이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날을 기다리지만 그의 다리는 돌아갈 기미를 주지 않는다. 옆에서 지켜보던 같은 미네랄의 석현이는 갈팡질팡한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두 다다쿵으로 안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후가 없지만 그의 몫을 챙겨주고 자신이 안주할 별에서 등지를 틀러 애쓴다.

덕산 베이비 별에서 온 규림이는 일단 간디라는 우주가 맘에 들었다. 쌍두마차의 민지라는 친구를 만나 즐거워하며 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잔소리를 하지만 일단은 챙겨준다. 민지도 싫지 않다. 일단 민지는 쌍두마차별에서 존재감을 조금씩 나타내면서 여

집인지 학곤지 구분할 수 없이 지낸다. 치킨도 와구와구 먹는다. 밥 먹을 때보다 누구보다 빨리 많이 먹는다. 규림이는 그런 민지가 신기하다. 규림이와 민지는 자신들의 세계에 빠진다.

덕산 베이비 별의 지호는 아직도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누군지 아는이가 별로 없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쌍두마차별의 늘푸른이는 같이 지낼 행성의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반장이 되었다. 그는 항상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다. 그것은 왜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의 신임을 본받고 싶다. 그는 아마도 반에서 아재개그를 날리며 매력을 뽐뽐하고 있으리라.

안투아별의 기범이는 입만 열면 귀여움이 발산한다. 그러나 어쩔때 시끄럽다... 어쩔때 귀엽다... 귀엽고 시끄럽다. 그는 귀엽다. 시끄럽다. 그는 귀엽고 시끄럽다. 그는 중간이 없다.

안투아별의 단오는 그렇다... 단오다... 그는 아저씨인지, 아이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그는 책임감이 강한듯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해 온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다.

밭별에 아란이는 어디서든 적응을 잘한다. 이미 력매전반 별에 안착하였다. 그녀는 작은 것에 기뻐한다. 그녀는 력매전반 일을 잘 도와준다. 그녀와 같은 별에서 온 규민이는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있다. 그를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웃기다.

강력별에 소은이는 간디라는 우주에 익숙하다. 이미 그녀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별이다. 그녀는 이곳이 익숙한 만큼 잘 지낸다. 목소리도 크고 자신의 매력을 뽐뽐하고 싶다. 뽐뽐할 것이다. 아니 이미 뽐뽐이다.

같은 별의 동연이는 이 공간이 낯설만도 한데 잘 지낸다. 자신이 현재 어떤 존재인지 알까? 그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걸까? 그는 현재 적응중이다. 간디에 물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비정상 회담 별의 룡수는 조용하고 착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잘하며, 두루두루 잘 지낸다. 그러나 그는 화낼때 화낸다. 화내면 무섭다. 그는 지금 간디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잘 안다. 어디까지 만끽인지를... 언제 그만 두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귀엽고 이쁜 15명의 친구들을 내려다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15명의 아이들이 간디라는 우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관찰한다. 그들은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한다. 싫어하는 것을 마구시킨다. 귀찮게 과제를 많이 낸다. 항상 모이라고 알리를 한다. 숙제검사를 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20일간 그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고향으로 전화를 몇 번을 하게 될지, 그리고 다치지나 않을지...

그러나 그들은 잘 안다. 20일간 그들이 얼마나 재밌게 지낼 수 있을지, 얼마나 웃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일지...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력매전반 움직이는 학교 파이팅!!! 친구들아 재밌게 지내보자!!

노래 모음

: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라라리 라라리 라라리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리라라 라라라라라리라라
라리라라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 벌에 온 외제인들처럼
웃을 거야

하하하하

: 노래방에서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연구 했지
여러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 해 봤지
그땐 내가 좀 못 생겨서 흑흑

내가 좋아하는 노랫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랫해
무심한 척 준비안한 척 노랫 불렀네 어어
그렇게 내가 노랫 부른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더 잘 불려볼걸 노랫 흥얼 거렸네

사랑때문에 노랫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날은 새들도 모두 사랑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 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맘을 달렸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랫
해

괜찮은 척 안슬픈 척 노랫 불렀네 어어
그렇게 내가 노랫 부른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 하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 렷지
않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뒤
무슨일 인가 괜찮은 건가 명해 버렸네 어어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랫 흥얼 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랫 흥얼 거렸네.

력매전반 자료집

끝



강규림 강아란 김단오 김동연 김지후 박석현 백늘푸른 서지호 여민지 이기범 이룡수 이지섭 이재영 임소은 최규민

력매전반 파이팅!